

BEETHOVEN

PIANO SONATA



2018.10.29 (월) / 10.31 (수) / 11. 08 (목) 7:30 pm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예향홀

전남대학교 피아노 교수음악회

주최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 공연문의 : 530-3030

2018. 10. 29 (월) 7:30pm

송민경

Sonata No.4 in Eb Major, Op.7

Allegro molto e con brio

Largo, con gran espressione

Allegro

Rondo: Poco allegretto e grazioso

조우식

Sonata No.15 in D Major, Op.28(“Pastorale”)

Allegro

Andante

Scherzo: Allegro vivace

Rondo: Allegro ma non troppo

황소원

Sonata No.28 in A Major, Op.101

Allegretto, ma non troppo

Vivace alla Marcia

Adagio, ma non troppo, con affetto;

Tempo del primo pezzo: tutto il Cembalo, ma piano; Allegro

김영진

Sonata No.30 in E Major, Op.109

Vivace ma non troppo— Adagio espressivo

Prestissimo

Andante molto cantabile ed espressivo

김지나

Sonata No.32 in C minor, Op.111

Maestoso—Allegro con brio ed appassionato

Arietta, Adagio molto semplice e cantabile



송민경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B.M.)
- 미국 신시네티 음대(University of Cincinnati) 피아노 연주학 석사 졸업(M.M.)
- 미국 오리건 음대(University of Oregon) 피아노 연주.교수법 박사 졸업(D.M.A.)
- 미국 오리건 대학, Linn-Benton전문대 강사 역임
- 현 전남대, 송원대, GIST출강,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KAPP), The Pianissimo음악 예술학회 회원



조우식

- 연세대학교 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이태리 Padova국제콩쿨, Rhigetti국제콩쿨 입상
- 충남교향악단, 독일 RSH,NRW 오케스트라 협연
- 현 전남대, 강릉원주대, 배재대 출강, 클랑클링트리오, 건우회 단원



황소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전문 연주자 과정 학위 취득
- 현 숙명여대 대학원, 전남대, 추계예대, 예원, 서울예고 출강



김영진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미국 Peabody Conservatory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 조선일보, 한국일보, 음연콩쿨, 이화경향콩쿨, 난파음악콩쿨, 음악저널콩쿨, 한국쇼팽 콩쿨, 한국 피아노학회 콩쿨, 미국 Yale Gordon Competition 상위입상
- 상명대, 세종대, 충남대, 안양대 강사 역임
- 현 전남대, 상명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계원예고 출강



김지나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미국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학사, 석사, 박사 취득
- 미국 Manhattan School of Music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미국 Young Soloists' Competition 우승, Bradshaw & Buono 국제 콩쿨 우승
- 미국 Kennedy Center (NSO 협연), Carnegie Hall 데뷔 독주회
- Peabody 예비학교 교수 역임, 현 숙명여대, 중앙대, 전남대, 예원, 서울예고, 강원예고 출강

2018. 10. 31 (수) 7:30pm

황지인

Sonata No.6 in F Major, Op.10, No.2

Allegro

Allegretto

Presto

이준영

Sonata No.8 in C minor, Op.13(“Pathétique,”)

Grave – Allegro di molto e con brio

Adagio cantabile

Rondo: Allegro

이정은

Piano Sonata No.13 in Eb Major Op.27, No.1

Andante–Allegro–Tempo I

Allegro molto e vivace

Adagio con espressione

Allegro vivace

박미성

Sonata No.24 in F# Major, Op.78

Adagio cantabile–Allegro ma non troppo

Allegro vivace

송유진

Sonata No.31 in Ab Major, Op.110

Moderato cantabile molto espressivo

Allegro molto

Adagio ma non troppo – Allegro ma non troppo



황지인

-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졸업,
- 미국 피바디 음악원 박사 취득
- 미국산호세국제콩쿠르 2위 및 청중상, 삼익-백슈타인 대상
- 현재 전남대, 서울대, 숙명여대, 대구가톨릭대 출강



이준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료
- 독일 뤼벡 국립음대 학사, 석사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주시향 협연
- 쾰른 백슈타인 피아노 young Professional 피아니스트 선정 및 초청 독주회
- 현재 전남대, 조선대 출강



이정은

- 서울예고 졸업, 연세대 음대 학사 및 석사
- 폴크방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실내악 석사과정 졸업
- 프랑크푸르트국립음대 Konzertexamen 졸업
- Porto 국제콩쿠르 1위, 중앙음악콩쿠르 3위, 세계일보콩쿠르 전체대상
-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 시리즈, 야마하 라이징아티스트 시리즈 독주회
- 현재 전남대 출강



박미성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프랑스 Cergy-Pontoise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실내악과 최고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 프랑스 Versailles 국립음악원 반주과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현재 전남대 출강, 광주 피아노 아카데미 회원



송유진

-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피바디 음대 및 맨하탄 음대 졸업
- 독일 하노버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2011년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시리즈 선정 및 연주
- 현재 전남대, 부산대 대학원, 예원, 서울예고,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출강

2018. 11. 08 (목) 7:30pm

최유진

Sonata No.7 in D Major, Op.10, No.3
Presto
Largo e mesto
Menuetto: Allegro
Rondo: Allegro

신수경

Sonata No.18 in E♭ Major, Op.31, No.3
Allegro
Scherzo. Allegretto vivace
Menuetto: Moderato e grazioso
Presto con fuoco

김아름

Sonata No.21 in C Major, Op.53 (“Waldstein”)
Allegro con brio
Introduzione: Adagio molto
Rondo. Allegretto moderato — Prestissimo

이인지

Sonata No.23 in F minor, Op.57 (“Appassionata”)
Allegro assai
Andante con moto
Allegro ma non troppo

박보윤

Sonata in E♭ Major, Op.81a (“Das Lebewohl”)
Das Lebewohl: Adagio—Allegro
Die Abwesenheit: Andante espressivo
Das Wiedersehen: Vivacissimamente



최유진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Folkwang Förderpreis Dr. Alfred Hoff junger Pianisten 2011, Köhler Osbahl 콩쿨 2위
- 현재 전남대, 순천대 출강



신수경

- 서울대 음대 및 동대학원 졸업
- 일리노이 음대 석사, 인디애나 음대 박사 취득
-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국내외 40여회 독주회
- 야나첵 필하모니, 플로브디프 오케스트라, 전주시향, 강남심포니 등과 협연
-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아름

- 선화예고, 서울대학교 기악과 졸업
- 독일 Würzburg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Diplom) 및 최고연주자과정(Meister) 졸업
- 독일 Essen Folkwang 예술대학 성악반주과 졸업
- 삼익콩쿨, 독일 'Wolfgang Fischer und Maria Fischer-Flach Stiftung' 입상
- 현재 전남대, 목원대, 선화예중, 선화예고, 덕원예고 출강



이인지

-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학사 졸업
-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Master) 및 최고연주자과정(Solistenexamen) 졸업
-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Postgraduate 졸업
- 독일 Konzertfreude e.V. 선정 '재능있는 젊은 예술가', 테라델리 임페리알리 국제콩쿨 전체대상
- 현재 숙명여대, 전남대, 인천예고 출강



박보윤

-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한스아이스러 디플롬, 데트몰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및 실내악과정 졸업
- 독일 호프하임 국제음악제상 및 데트몰트 국립음대 실내악상 수상
- 세종대 융합예술대학원, 이화여대, 전남대, 서울예고 출강
-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조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

BEETHOVEN

Ludwig van Beethoven(1770-1827)

음악사에서 베토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실로 절대적이다. 작곡 기법, 표현 양식, 또는 확립된 스타일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초월해 심오하고 철학적인 경지로 음악을 승화시켜 베토벤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이른다. 그는 18세기 중엽부터 내려오는 고전주의 양식을 바탕으로 19세기의 낭만주의까지 섭렵하여 '베토벤 스타일'을 만들어 냈고, 교향곡, 서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현악 4중주, 피아노 3중주, 각 악기의 독주 소나타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독특한 개인주의적(individualism) 감정을 쏟아놓는다. 이러한 특징의 베토벤 음악은 강렬하고 열정적이며, 때때로 감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그의 말년의 작품은 숭고한 인간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은 1770년 독일의 본(Bonn)에서 태어났다. 궁정 가수였던 아버지에게 어린시절 기초적인 음악교육을 받았으며 그가 1792년 빈(Wien)으로 떠나 하이든 (Joseph Haydn)과 공부하기전까지 네페(Cristian Gottlob Neefe)에게 작곡을 사사했다. 이후,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Heiligenstadt Testament)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겪고 극복하여 다시금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켰으며 낭만주의 시대를 예비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토벤은 청력은 더욱 악화되며 상실감에 의한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앓게 되지만, 그의 음악은 오히려 더 내면화 되고 깊은 철학적 내용을 담게 된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많은 작품 구상을 하며 창작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1827년 세상을 떠나게 된다.

베토벤의 작품 스타일을 논할 때 보통 그의 일생과 연관지어 3가지 시기로 양식을 나눈다. 제 1시기인 초기에는 전통적인 고전주의 양식에 기초를 두고 베토벤의 개성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그는 빈(Wien)으로 떠나기 전 이미 세 개의 선제후 소나타(3 Kurfürstensonaten, WoO 47)를 발표하는데 초기 고전주의 양식으로 쓰여진 이 소나타에서 이미 그의 강렬한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제 2시기 중기 시대는 베토벤의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이후인 1803년부터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시기엔 어려움을 극복해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영웅성, 거대함으로 그 특징이 표현된다. 중기 시대에 베토벤은 그의 인생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역작들을 탄생 시켰는데 이 과정 속에는 발트슈타인(Ferdinana von Waldstein)이라든가 라주모프스키(Andreas Razumovsky)와 같은 후원자들과의 좋은 관계 또한 그의 작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 제 3시기에는 그의 청력 상실과 생활고 등의 문제로 다시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에 창작된 작품을 포함한다. 개인적인 어려움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지만 오히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이러한 경향은 낭만주의 음악의 이상과도 잘 부합하고 있다. 이 시기에 베토벤은 더 이상 음악적 규칙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채 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집중하며 내면의 속삭임에 철학적 메시지를 더한다.

PROGRAM NOTE

2018. 10. 29 (월) 7:30pm

Sonata No.4 in Eb Major, Op.7

“그랜드 소나타”라는 별명을 가진 제 4번은 1796년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의 수도) 에서 작곡한 곡으로 작품번호 7로 1797년에 출판되었다. 작품번호 2의 소나타 세 곡보다 규모가 크고 내용적인 면에서 박력이 넘치며, 밝은 색상과 정교한 텍스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 가장 교향악적인 곡으로 묘사될 수 있다. 베토벤의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두 번째로 긴 곡으로 4개의 악장으로 되어있으며 초기의 제자 헝가리 귀족, 바베테 폰 케글레빅스 백작의 딸 바르바라에게 헌정되었다. 소나타의 네 악장 중, 세 악장은 반복되는 음을 사용하여 추진력을 줄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통일감을 부여한다.

Sonata No.15 in D Major, Op.28(“Pastorale”)

베토벤은 이 피아노 소나타를 쓴 1801년경에 귓병이 한층 악화되었고, 그 때문인지 그는 때를 가리지 않고 전원 속에 파묻혔다. 푸른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과 노래하는 새소리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었다. 마음의 고뇌와 격렬하게 기록하는 감정은 자연 속에 있을 때 안온함과 풍족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베토벤은 특별히 〈전원〉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곡에서 받는 느낌이 그러했기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은 이 곡을 〈전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곡은 당시 빈에서 문명(文明)이 높았던 존네퍼스에게 바쳤다. 〈월광〉소나타와는 같은 해의 작품으로, 어딘가 공통의 예술적 연관성이 엿보인다.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원〉이라는 부제의 특징은 제 4악장에 나온다. 멀리서 울려오는 교회의 종소리, 숲 속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시골 아이들의 떠들썩함, 목동들이 부는 피리소리의 전원 풍경이 느껴진다.

Sonata No.28 in A Major, Op.101

3악장 구조로 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환상곡풍의 소나타로 낭만적인 색채가 풍부하다. 특히 이 곡의 제 2악장은 슈만을 예감하게 하는 울림을 갖고 있다. 제 3기에 속하는 1816년에 완성되었으며 브로드우드사의 피아노 가장 낮은 음역까지 사용하였다. 제 1악장과 제 3악장이 내면적인 반면 제 2악장과 제 3악장 Allegro의 능동적이고 남성적인 면이 대조를 이룬다. 제 3악장에서 제 1악장의 주제가 순환되어지고 제 1악장의 동기로 주제를 만들어 푸가로 발전시킨 것도 특징이다. 베토벤의 내면을 건축물을 쌓아 올리듯 완벽한 구성의 소나타이며 환상곡 풍의 대곡이다.

Sonata No.30 in E Major, Op.109

베토벤이 49세 때인 1820년에 작곡된 제 30번 소나타는 기존의 소나타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폭넓게 예술적 감성이 펼쳐지고 있으며, 사랑했던 여인인 막사밀리안 브렌타노에게 헌정되었다. 베토벤이 청각을 잃은 후에 쓰여진 작품으로, 그의 고통을 음악으로 극복하고 승화시킨 명상적인 내면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후기 소나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로운 형식과 대위법적인 짜임새, 악장간의 구분선을 모호하게 하여 연속성을 취하는 등 고전 소나타 형식에서 점차 탈피하여 딱딱하고 형식적인 면보다는 환상적이고 즉흥적인 면을 추구하는 특징들을 엿볼 수 있다.

Sonata No.32 in C minor, Op.111

피아노 소나타 제 32번은 〈장엄미사〉를 쓰는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1819년에 스케치를 시작하여 1822년 초에 완성되었다. 이곡은 출판된 지 30여년 동안 음악적, 기교적 난해함 때문에 연주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달고 방치되었다. 19세기 중반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슈타인에 의해 초연되어 비로소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곡은 베토벤이 이전에도 몇 차례 시도한 형태로, 3악장이 아닌 2악장으로 압축된다.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안에서 대위법적인 기법을 담고 있으며 제 2악장에서는 변주곡을 사용하여 후기 양식을 철저하게 집약시킨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개의 악장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제 1악장이 베토벤이 음악에 저항하는 느낌이라면 제 2악장은 음악에 굴복하고 끝없이 광활한 세계로 해방되어 나가는 분위기가 감돈다.

PROGRAM NOTE

2018. 10. 31 (수) 7:30pm

Sonata No. 6 in F Major, Op.10, No.2

소나타 6번은 Op.10에 수록된 세 개의 곡들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베토벤의 음악에서 주로 느껴지는 장중함과 심각함 보다는 그의 유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작품이다. 우선, 소나타~알레그로 형식으로 작곡된 제1악장에서는 스타카토와 침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가 발랄함을 더해준다. 또한, 발전부의 마지막에 제1주제를 원조가 아닌 다른 조성으로 등장시키는 거짓재현부 (false recapitulation)의 사용으로 베토벤 식의 유머를 표현하였다. 제 2악장은 ABA 형식의 미뉴에트 악장으로 현악사중주의 텍스처를 연상시킨다. 긴 레가토 선율로 시작하는 악장의 중간부터 등장하는 첼로의 피치카토와 악박의 sf 들은 느린 악장에 활기를 더한다. 제3악장의 시작은 스타카토와 빠른 음형으로 만들어진 경쾌한 선율이 푸가기법으로 제시된다. 이 주제는 악장 전반에 걸쳐 여러 조성과 음형으로 변형되어 다채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Piano Sonata No.8 in C minor, Op.13 (“Pathétique,”)

일명 비창 소나타는 1798년부터 1799년 사이에 작곡되어 베토벤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칼 폰 리치노프스키(Carl von Lichnowsky)에게 헌정된 작품이다. 이 소나타의 부제로 알려져 있는 '비창 Pathétique'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출판 시 출판업자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이 곡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무엇보다도 이전 시대의 음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긴장감과 강렬함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비창 소나타는 베토벤이 최초로 드러낸 드라마틱한 자신의 모습이며, 어둡고 침침하며 비극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최초의 심리주의적, 표현주의적 피아노 소나타로 기록된다. 곡의 조성 또한 운명 교향곡과 같은 C단조이다. 베토벤이 좋아했던 이 어둡고 비장한 C단조는 5번 소나타와 마지막 32번 소나타와 더불어 총 세 곡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사용되었다.

Piano Sonata No.13 in Eb Major Op.27, No.1

베토벤의 소나타 32곡은 어느 곡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품으로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눌 수 있다. 13번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개성이 뚜렷해진 시기인 제 2기의 작품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제 3번에서 제 8번을 작곡한 시기이다. 이 소나타에는 <환상곡풍의 소나타>라는 부제가 붙어있으며 제목에 걸맞은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내면적인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곡 전체에 즉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각 악장이 모두 연결되듯이 연주하게 되어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Adagio의 제3악장을 제4악장의 서주부로 취급하여 보는 경우도 있다.

Sonata No.24 in F# Major, Op.78

이 곡은 제23번 열정 소나타 작곡 후 4년 만인 1809년도에 작곡되었다. 테레제(Therese)에게 헌정되어 일명 <테레제 소나타>라고도 불린다. 이 곡은 화려한 기교와 작법이 빼어나게 결합된 드라마틱한 그 전의 소나타와는 달리, 눈에 두드러지는 비르투오조 성향은 자취를 감추고 서정성과 소박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4마디의 도입구에 이어지는 2개의 짧은 악장으로 내적인 아름다움과 담백한 순진성을 지닌 곡으로 선율이 아름답다. 제 1악장은 서정적이며 자유로운 소나타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 2악장은 론도 또는 소나타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Piano Sonata No.31 in Ab Major, Op.110

베토벤의 작품 중 특히 낭만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이 곡은 그의 32개의 소나타 가운데 후기 소나타로 불리는 세 곡 중 하나에 속한다. 이 소나타는 전체적으로 슬픈 색채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감미로운 꿈과 확고한 신념이 공존하여 매우 유연하고도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며 또한 가장 널리 애주되는 명곡 중 하나이다. 전개부를 확대하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극적 레시타티브와 푸가를 도입하여 변형된 고전주의적 소나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제 1악장은 구름 한 점 없이 활짝 갠 날씨의 화창함을 드러내는 주제를 갖고 있고, 제 2악장의 경우 불안한 기분과 당돌하고 제멋대로인 감정이 어우러진 삽입적인 악장이며, 제 3악장은 베토벤의 내면세계의 관조가 슬픈 레시타티브와 아리오소의 음악 속에 녹아 있다.

PROGRAM NOTE

2018. 11. 08 (목) 7:30pm

Sonata No.7 in D Major, Op.10, No.3

1798년 청력장애가 시작되던 해의 작품으로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악장에는 미뉴엣이 다시 부활하고, 제 4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끝맺는다. Op.10의 3곡 중 가장 뛰어난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통 중에서 기쁨을 찾아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승화가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으며 개성적 원숙미, 정신적 성숙이 잘 표현되고 있다. 제 2악장에는 Largo e mesto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베토벤은 제자들에게 “슬픔에 쌓여있는 심정을 우울 속에서 빛과 그늘의 뉘앙스로 그리려고 했다” 고 표현한 적이 있다. Largo를 피아노 소나타에서 독립된 의미 악장으로 쓴 것은 이 곡이 마지막이다.

Sonata No.18 in Eb Major, Op.31, No.3

Op.31의 세 개의 소나타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가 쓰여진 1802년 무렵에 작곡되었다. 베토벤은 이전 작품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작곡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밝고 활달한 Op.31, No.3는 4악장 구성으로 느린 악장이 없으며 제 2악장은 2/4박자의 Scherzo, 제 3악장은 Menuetto의 특이한 악장 배열로 되어 있다. 제 1악장과 제 2악장에 사용된 스타카토와 트릴은 당시 피아노 악기의 기계적 발달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제 1악장은 제6음이 첨가된 IV도, 혹은 II도의 7화음으로도 볼 수 있는 다소 애매모호한 코드로 시작하며 제 1주제의 5도 하강하는 모티브는 “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준다. 제 4악장은 사냥 장면 혹은 타란텔라를 연상시킨다.

Sonata No.21 in C Major, Op.53 (“Waldstein”)

1805년 출판되어 베토벤의 초기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인 페르디난트 폰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된 곡이다. 중기 소나타의 대표작으로 형식과 내용, 표현과 수단, 균형과 연관 등 완벽한 조화를 담고 있고,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사운드를 고도로 발전된 작곡기법을 통해 담았다. 제 1악장의 첫 주제는 저음부의 화음부터 시작하여 고음부의 화려한 폭발까지를 아우르는 반복적인 화음을 기반으로, 그 안에는 두 번째 주제가 잔향처럼 두 번 등장하며 조화를 이룬다. 제 2악장은 상대적으로 짧고 느리다. 마지막 론도 악장은 비르투오소적인 테크닉과 풍부한 상상력, 힘과 서정의 극단적인 대비를 요구한다.

Sonata No.23 in F minor, Op.57 (“Appassionata”)

부제 ‘열정’은 독일 출판업자 크란츠가 붙인 것이다. 1806년에 완성되어 영원한 연인으로 불리는 테레제의 오빠 브룬스비크백작에게 헌정된 이 곡은 형식, 감정의 강도, 음역과 소리의 크기까지 모든 것이 극단적이다. <함머클라비어>를 작곡하기까지 베토벤이 가장 아끼는 곡이었지만 표현과 테크닉의 어려움 때문에 작곡 초기에는 아무나 연주할 수 없었다. 베토벤을 존경하고 작품을 꾸준히 연주했던 프란츠 리스트의 연주력과 관심 덕분에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 격정적인 제 1악장의 네 음 모티프는 제 5번 <운명> 교향곡의 모티브를 떠올리며 변주형식의 제 2악장이 감7화음으로 끝나면 악마적인 분위기의 피날레가 격렬한 오프닝으로 시작된다.

Sonata in Eb Major, Op.81a (“Das Lebewohl”)

베토벤의 소나타 중 유일하게 음악 외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제 1악장은 Das Lebewohl(고별), 제 2악장은 Die Abwesenheit(부재), 제 3악장은 Das Wiedersehen(재회)와 같은 제목을 악장 앞에 붙여 곡의 특성을 암시하였다. 베토벤의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자였던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었으며, 그가 프랑스의 침공으로 인해 비엔나를 떠나게 될 즈음 착상되었다고 한다. 하나의 주제가 전체 소나타에 걸쳐 전개되어 모티브의 발전을 통한 예술적 전개를 엿볼 수 있다. 제 1악장 느린 서두를 가지는 소나타형식, 2부형식의 느린 제 2악장은 빠른 피날레 악장으로 씩없이 연결된다.

BEETHOVEN

PIANO SONATA

전남대학교 피아노 교수음악회

이 프로그램으로 초대권을 대신합니다.